

朱丹溪 醫學思想의 背景에 관한 研究

-『格致餘論』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基郁·朴炫局

A research on the background of ZhuDanXi(朱丹溪)'s medical theory

-Based on 『GeZhiYuLun(格致餘論)』-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kook
University.

Kim KiUk·Park HyunKook

Zhu Dan Xi's name is ZhenHeng(震亨) and was also called by the title of YanXiu(彦修). Early in his life, he started to study JuZiYe(舉子業), and went on to study DaoDeXingMingXue(道德性命學) under the teachings of XueQian(許謙), who as one of fourth generation disciple of ZhuZi(朱子) was teaching in BaHuaShan(八華山). His well-known literary works are 『JuFangFaHui(局方發揮)』, 『GeZhiYuLun』, 『ShangHanBianYi(傷寒辨疑)』, 『BenCaoYanYiBuYi(本草衍義補遺)』, 『WaiKeJingYaoXinLun(外科精要新論)』.

Zhu Dan Xi learnt the studies of Liu(劉), Zhang(張), Li(李) from LouZhiTi(羅知悌) and adopted the advantages and abolished disadvantages from it. The southern district being low and damp, which also leads to a geographical condition with a lot of ShiReXiangHuo(濕熱相火) disease and with the social background of people exhausting their QingYu(情欲) and damaging QiXie(氣血), he came out with the theory of 'YangYouYuYinBuZu(陽有餘陰不足)', 'XiangHuo(相火) and became a well renowned expert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QiXieTanYuHuo(氣血痰鬱火).

As a result, the writer has performed a research based on Liu's works and related theories, GuWuZhiZhi theory, the understanding of TaiJiZhiLi(太極之理), the inner meaning of YinYang and YouYuBuZu(redundancy-and-deficit), YinYangDongJingGuan, physiology and pathology, the medical reason of lust damaging QingYuYangYin and YangSheng(養生)(preservation of health), which are the main medical theory of ZhuDanXi, comments of later generations and is reporting the outcome.

Key Word : ZhuDanXi, 'YangYouYuYinBuZuLun', 'XiangHuoLun', LiuShiJiao YangSheng.

I. 緒論

주단계(1282~1358)의 이름은 震亨이고 자는 彦修이다. 대대로 義烏 丹溪에서 살았기 때문에 후인들이 朱丹溪라 칭하였다. 그는 일찍이 舉子

* 交信著者 : 金基郁,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54) 770-2664 kkw@dongguk.ac.kr

業을 공부하였으며 許謙이 朱子の 四傳弟子로 八華山에서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스승으로 모시고 도덕 성명학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였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局方發揮』, 『格致餘論』, 『傷寒辨疑』, 『本草衍義補遺』, 『外科精要新論』(『外科精要發揮』로 되어 있기도 하다) 등을 편찬하였다¹⁾.

『四庫全書醫家類·格致餘論』에서는 “震亨은 元나라 의가인 劉守眞의 학설을 공부하다가 ‘陽易動 陰易虧’에서 크게 깨우친바 있어 ‘滋陰降火’를 중히 여기고 ‘陽常有餘, 陰常不足論’을 창안하게 되었다. 이 학설은 그 후 明代 의가인 張介賓 등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震亨의 의도는 ‘補益滋陰’하는데 있으므로 항상 강조하기를 飲食과 色慾을 경계로 삼았고 주로 補陰시키는 여러 가지 方을 창안하게 되어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²⁾고 평가하였다.

朱丹溪는 劉張李의 학문을 羅知悌에게 전수받아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렸으며³⁾, 게다가 강남이 지대가 낮고 습하여 濕熱相火의 병이 매우 많은 지리적인 특성과 사람들이 대부분 정욕을 과다하게 소진하여 기혈을 손상시키는 사회적인 풍조가 배경이 되어 ‘陽有餘陰不足’, ‘相火’ 등의 이론을 제시하였으며⁴⁾, 또한 雜病에 있어서 氣血痰鬱火의 변증논치 방면에 독보적인 조예를 갖추어 일대의 대가가 되었다⁵⁾.

유학적 토대 위에 의학사상을 구축한 단계의 醫哲學思想과 단계학과의 학문을 후대에 재해석함으로써 의학이론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明清시기 溫病學派, 溫補學派 등은 모두 단계의 학술적인 영향을 직접 받았다⁶⁾.

최근 中國의 劉時覺은 “그의 주요 학술적인 관점인 ‘陽有餘陰不足論’, ‘相火論’은 劉, 張, 李 제가의 학설에 기초하고 ‘또한 다시 太極之理를 참조’하고 ‘『內經』의 이론에 관통하여 그 지향하는 바를 탐색하여’ 형성된 것이다. 모든 논술 과정에서 단계는 匠人의 마음으로 임하였다”⁷⁾고 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劉의 연구 및 관련된 연구를 바탕⁸⁾으로 하여, 주단계 의학사상의 축을 이루고 있는 格物致知의 의학이론, 太極之理에 관한 인식, 陰陽의 함의와 유여부족, 陰陽動靜觀과 생리병리, 情欲傷陰의 醫理와 양생, 후세의 평론 등의 방면에 따라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格物致知의 의학이론

‘格物致知’의 인식론은 朱熹 理學의 중심이 되는 내용의 하나이다. ‘格物’이란 무엇인가? ‘形而下의 器가 궁극적으로 形而上의 道理를 얻는 것이다’⁹⁾. ‘致知란 무엇인가?’ 즉 ‘나의 지식을 미루어 그 아는 바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즉 形而下인 사물의 관찰을 통하여 形而上의 天理를 인식하는 즉 사물에서 理를 발견하는 것

2002, pp. 538-541.

6) 冷方南 외 1인 : 『倡導養陰의朱丹溪』,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8, pp. 62-72. 『中國歷代名醫名述』: 前掲書, pp. 529-530.

7) 劉時覺 : 『朱丹溪 “參以太極之理”的是非得失』, 醫學與哲學, 1983; (5): 15

8) 葉川 외 1인 :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章眞如 : 『朱丹溪學術考論』,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劉祖貽 主編 : 『中國歷代名醫名述』, 中國古籍出版社, 2002. 李永源 : 『朱丹溪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1991. 張日武 외 1인譯 : 『丹溪醫集』,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9) 黎靖德 編 : 『朱子語類大全』卷六十二『中庸』, 中華書局, 1994, p. 1496.

1) 朴炫局 외 2인譯 : 『中國科學技術史』, 一中社, 2003, p. 662.

2) 江標 輯 : 『四庫全書總目·子部·醫家類』: 『格致餘論』中華書局, 1964, p. 871. “得劉守眞之傳, 其說謂陽易動, 陰易虧, 獨重滋陰降火. 創爲陽常有餘, 陰常不足之論. 張介賓等攻之不遺餘力, 然震亨意主補益, 故諄諄以飲食色欲爲箴. 所立補陰諸丸, 亦多奇效.”

3) 丹溪의 의학이론은 위로는 劉河間을 계승하고 李東垣, 張子和를 참고하고, 『內經』에 바탕을 두었으며, 당시 성행한 『局方』의학에 대항하였는데, 동시대 宋濂의 『石表辭』, 戴良의 『丹溪翁傳』, 후세 『明史』, 『四庫全書』에서 모두 이러한 점을 제삼 강조하였다

4) 丹溪는 의료실천에서 『和劑局方』의 폐해를 심각하게 체험하고 三家의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여 자신의 의학사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를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丹溪之學與宣和局方之爭을 “醫之門戶分于金元”하는 지표로 삼아 “盛行于宋元之間, 至震亨『局方發揮』出而醫學始一變也”의 결과를 낳게되었다.

5) 劉祖貽 외 1인 : 『中國歷代名醫名述』, 中國古籍出版社,

으로, 적은 것에서 많은 것에 미루어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다¹⁰⁾. 許謙은 朱熹의 이러한 학설을 계승 발전시켜 心의 인식작용을 더욱 강조하여 “格物之理, 所以推知我心知. 用力之久, 一旦豁然貫通, 是言格物本是逐一去窮究, 格來格去, 忽然貫通…… 事雖萬殊, 理只是一, 曉理只在此事如此, 便曉理之在彼事亦如此. 到此須有融會貫通脫然無碍.”¹¹⁾이라 하였다. 일단 관통하면 朱熹가 말한 “物之表裏精粗無不到, 而吾民之全體大用無不明”하는 경지에 이른다. 말하자면 理學의 ‘格物致知’는 소박한 反映論의 색채를 띠고 있다.

丹溪는 “의학은 유학에 있어서 격물치지의 일환이다[醫者, 儒家格物致知之一事]¹²⁾라는 목적으로 의학을 연구하였는데, 의학연구를 통하여 ‘心知’를 추진하고 자신의 ‘認知’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는 “上以療君親之疾, 下以救貧賤之厄¹³⁾하는 실용적인 목적과 다르고, “不爲良相, 卽爲良醫¹⁴⁾라는 자아의 가치 실현에 중심을 둔 동기वाद도 다르며, 더군다나 ‘淪述于醫’하는 隱逸의 풍조वाद도 다르다. 이 때문에 丹溪는 실천을 더욱 중시하여 구체적인 ‘物’에서 규율을 찾아 ‘知’와 ‘道’를 직접 체득하는 엄격한 이론적인 태도를 갖춰 연구의 출발점을 보다 높이 두었다.

朱熹의 理學은 엄정하고 완비된 이론형태를 하고 있다. 朱熹는 周敦頤의 『太極圖說』을 개조하여 ‘太極理也’라는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고 우주의 본체를 理의 구조이론으로 전개시켰다. 그는 二程이 理를 최고의 범주로 삼은 理本論 철학을 발휘시켜 理를 우주만물의 최종적인 본원으로 보았다. 張載의 氣學 이론을 개조하여 최초로 理

氣의 관계를 계통적으로 논하였고, 程頤와 張載의 ‘心性’사상과 ‘格物致知’학설을 완비시켜 엄정한 인식론과 수양론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것 모두 단계의 의학적천과 의학이론연구에서 충분히 구현되었다.

2. 太極之理에 관한 인식

1) 理學의 太極之理

주단계가 참조한 ‘太極之理’는 周敦頤의 『太極圖說』¹⁵⁾에서 기원하였는데, 그 원문은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交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化而變化無窮焉. 惟人也得其秀而最靈, 形既生矣, 神發知焉, 五性感物而善惡分, 萬事出焉. 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으로 되어 있다.

이는 『周易·繫辭』에서 “易有太極, 太極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¹⁶⁾라 한 것과 老子에서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¹⁷⁾라 한 것을 기초하여 우주가 탄생하고 발전한 과정인 세계의 생성 모델을 계통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太極은 만물의 본원으로 그 성상은 無形, 無象하여 말로써 설명할 수 없다.

주희는 주돈이의 『태극도설』을 개조하여 ‘太極理也’라는 새로운 명제를 제출하고 ‘理’를 우주의 본체이고 궁극적인 본원으로 삼아 ‘理’를 철학체계에서 최고의 범주로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개시킨 ‘理’의 구조적인 이론은 그의 모든 사상체계를 구축하였다. 주희는 “無極而太極”은 “無形而有理”¹⁸⁾하고, “以有無爲一”¹⁹⁾이라 하였다. “太

10) 前掲書：『丹溪醫集』, p. 5. “온전한 지식에 다다른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으니, 실제적인 사물을 통하여 궁극한 다음에 지식에 이른다[『大學』致知在格物, 物格而後知至.]”

11) 許謙：『讀四書叢說·大學』中華書局 1985, 秦志勇：『中國元代思想史』, 注5 참조

12) 嚴世藝 외22人：『中國醫籍通考·丹溪心法』,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程充序日……”

13) 朱佑武 校注：『宋本傷寒論校注』, 『張仲景原序』,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p. 2.

14) 前掲書：『中國科學技術史』, p. 555.

15) 周敦頤：『太極圖說』, 『四部備要·子部』第168冊. 朱熹：『性理精義』卷一, 上海中華書局, 1981. pp. 1-9.

16) 成石曉 譯：『周易傳義』下卷『繫辭上傳』, 傳統文化研究會, 1988, p. 560.

17) 陳鼓應 著：『老子註譯及評介』, 中華書局, 1987, p. 232.

18) 前掲書：『朱子語類大全』卷九十四, p. 2365.

極, 實理也”²⁰⁾라 지적인 ‘理’는 천지만물의 근본적인 발원이 되어 “宇宙之間, 一理而已, 天得之而爲天, 地得之而爲地”²¹⁾, “未有天地之先, 畢竟也只是理, 有此理便有此天地, 若無此理便無此天地, 無人無物, 都無賅載了. 有理便有氣, 流行發育萬物”²²⁾하고 “太極生陰陽, 理生氣也”라 하였다. ‘理’는 또한 ‘氣’를 통하여 구체적인 만사, 만물을 탄생시켜 “陰陽是氣, 五行是質, 有這質所以做得物事出來. 五行雖是質, 他又有五行之氣, 做這物事有得”²³⁾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無極—太極—陰陽—五行—萬物”로 되는 주돈이의 太極圖式이 주희에 의해 “理—氣—萬物”의 圖式으로 치환되었다. 이 때문에 “理在氣上”하여 일체 만물을 능가하는 위에 자리하고 천지만물과 그 운동을 주재하는 최고의 범주가 되었다. “太極理也, 動靜氣也. 氣行則理亦行”²⁴⁾라 하였다.

‘理’란 무엇인가? 陰陽五行이 변화하는 ‘理’를 가리키는 것 이외에 주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封建倫理道德의 綱常原則이었다. 이에 관하여 주희는 “理便是仁義禮智”²⁵⁾, “蓋天下有萬世不易之常理 …… 如君君, 臣臣, 父父, 子子, 此常理也”²⁶⁾라 하였다.

이와 같이 주희는 『태극도설』을 통하여 그의 철학사상의 최고 범주인 ‘理’를 논증하였고, 또한 봉건 윤리도덕관념인 ‘태극’이 세계의 본원이고 모든 객관적인 사물을 주재한다고 하였다.

2) 太極之理의 개조

주단계는 ‘太極之理’를 참조하여 醫理를 설명

함에 있어서 匠人의 마음으로 개조하였다. 주씨는 『相火論』에서 太極之理로 君, 相火의 생성과 성질에 대해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 各一其性, 而火有二 …… ”²⁷⁾라 해석하였다. ‘氣’를 언급하고 ‘理’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같이 단계는 ‘無極’을 버리고 ‘태극’을 언급하여 실질적으로 ‘無極而太極’, ‘無形而有理’를 부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주희가 태극 아래에 정의한 것을 내버리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丹溪는 朱熹가 ‘理’가 우주만물의 궁극적인 본원이 되는 가장 중심이고 가장 관건이 된다고 한 내용을 회피하여 자신의 학설이 유심주의적인 것을 면하게 한 것은 단계의 고명한 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은 주단계가 강조한 太極의 ‘動靜’ 운동상태로 여기에서 음양을 끄집어내었다. 朱熹는 “動靜, 氣也”, “氣之所以能動靜, 理爲之主宰也”²⁸⁾라 하였다. ‘理’의 주도작용을 강조하였지만 ‘動靜’ 운동이 바로 물질적인 ‘氣’의 운동임을 부인하지 못하였다. 단계는 動靜을 부각시켜 주희 理學의 합리적인 內核을 흡수하고 유학을 원용하여 의학에 집어넣은 것은 醫理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주돈이가 말한 태극운동은 그 정도를 강조한 것이다. ‘極’은 ‘極’에 도달해야 비로소 주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대립적인 운동상태로 전화하여 ‘動—靜—動’이 교체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으로 보았다. 단계는 인체 생리에 대한 그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태극도설』에 대해 “動極而靜”, “靜極復動”으로 개조하였다. 이와 같이 태극운동은 동정이 병존하고 또한 한도가 있는 국면이 되었고, 또한 사이클적으로 교체하여 출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였다. 단계는 생리상태의 동정은 특히 ‘動’은 태과할 수 없고 또한 ‘極’하는 ‘動極’은 일종의 엄중한 병리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人之疾病亦生爲動, 其動之極也, 故病而死矣.”²⁹⁾라 하

19) 朱熹: 『太極圖說注』, 『四部備要·子部』, 第168冊. 前掲書: 『性理精義』, 『太極圖說注』, 卷一, p. 1.

20) 前掲書: 『性理精義』, 『太極圖說注』, p. 3.

21) 朱熹: 『朱子大全』, 『讀大紀』, 卷七, 『四部備要·子部』, 第164冊, 上海中華書局, 1936. p. 5.

22) 前掲書: 『朱子語類大全』, 卷一 『理氣上·太極天地』, p. 1.

23) 上掲書: 卷一 『理氣上·太極天地』, p. 23.

24) 前掲書: 『朱子語類』, 『太極圖』, 卷九十四, p. 1376.

25) 上掲書: 『太極圖』, 卷九十四, p. 1378.

26) 上掲書: 卷五十八 『伯夷目不視惡色章』, p. 1366.

27) 朱震亨 撰: 『格致餘論』, 『相火論』, 『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38.

28) 前掲書: 『朱子語類大全』, 卷九十四

였다. 주단계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스승인 許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허겸은 太極이 陰陽을 생한다는 것은 음양이 태극 자체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 “太極之中, 本有陰陽. 其動者爲陽, 靜者爲陰. 生則俱生, 非可以先後言也”, “一元混沌而二氣分肇, 譬猶一木, 折之爲二, 兩半同形, 何先後之有?”³⁰⁾라 하여 陰陽은 太極 속에는 두 개의 대립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주단계는 “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를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³¹⁾로 변화시켜 ‘動靜’ 두 글자를 陽, 陰 뒤에 가하여 『태극도설』을 또한 개조시켰다. ‘動靜’은 태극운동의 형식과 음양의 氣가 탄생하는 본원일 뿐만 아니라, 음양의 氣가 운동하는 특징이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단계는 火가 “主乎動”, “凡動皆屬火”한다는 결론을 끄집어냄으로써 相火의 생리병리를 진일보 밝혀 이론적인 기초를 다졌다. 戴良은 “謂『內經』之言火, 蓋與太極動而生陽, 五性感動之說有合”³²⁾한 것이라 하여, 단계는 이것으로 자신의 의학이론을 천명하였다고 하였다.

五行은 일종의 물질적인 형태로 이는 음양의 기가 분화된 결과이며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曰稼穡”³³⁾이라 하여 “五行之生, 各一其性”³⁴⁾이다. 단계는 오히려 “惟火有二. 曰君火, 人火也. 曰相火, 天火也”³⁵⁾라 하여 ‘各一其性’의 범위를 뛰어 넘었는데, 『황제내경』의 君, 相火를 직접 인용하여 새로운 함의를 부여하였다. 단계가 밝힌 의학관점은 ‘太極之理’의 속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단계가 양기가 動을 주관한다는 설에 바탕으로 하여 火의 성질을 논한 것은 주희의 견해를 빌린 것이다. 주희는 “火質陽而性本陰 …… 外明而內暗, 以其根于陰也”³⁶⁾라 하였는데, 이는 본래 “陰中有陽, 陽中有陰, 陽極生陰, 陰極生陽, 所以神化無窮”³⁷⁾한다는 대립, 통일적인 그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단계는 火의 성질을 언급한 것에 의거하여 “火內陰而外陽, 主乎動者也”³⁸⁾라 하였다.

3. 陰陽의 含意와 有餘不足

단계의 글 속에는 음양의 함의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氣有餘血常不足論』에서 氣血은 陰陽이고³⁹⁾, 둘째 생식기능과 관련하여 남자는 16세에 精이 成하고 여자는 14세에 經이 행하여 “陰氣始成, 而可與陽氣爲配”⁴⁰⁾하며, 『慈幼論』에서 “人生十六歲以前, 血氣俱盛……惟陰長不足”⁴¹⁾이라 하여 陰은 기혈이 아니라 생식기능의 물질적인 기초로 인식하였다. 이와 대응하는 ‘陽’에 대해서 단계는 그 의의와 정상적인 상태를 밝히지 않고, 논한 것은 모두 유여한 정욕의 過極과 相火가 망동하는 異常현상에 속하고 있다. 주희가 “神知, 陽之爲也 …… 陽主辟, 凡發暢宣散者, 皆陽爲之也”⁴²⁾라 하였고, 주단계는 劉完素의 ‘五志皆能化火’의 관점을 결합하여 정신과 정지활동이 모두 ‘陽動’에 속한다고 보아 ‘凡動皆屬火’한다고 강조하였다⁴³⁾. 朱丹溪는 정욕이 동하여 君, 相火의 동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陽’은 특히 끝없는 정욕 가리키고 性의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을 말한다고 하였다⁴⁴⁾. 氣血은 精을 이루고 잉태하는 기초이면서 원천이고, 기혈을 논한 것은 정혈과 정욕을 논하기 위해 마련한 길로 전편을 통하여

29) 前揭書：『格致餘論』『房中補益論』, p. 42.

30) 前揭書：『讀四書叢說·大學』

31) 前揭書：『格致餘論』『相火論』, p. 38.

32) 段逸山：『醫古文』『丹溪翁傳』 人民衛生出版社, 1985, p. 72.

33) 孔安國：『尚書』『洪範第六』『四部叢刊正編』卷1, 法仁文化社, 1989, p. 46.

34) 前揭書：『格致餘論』『相火論』, p. 38.

35) 上揭書：『相火論』, p. 38.

36) 前揭書：『太極圖說注』

37) 前揭書：『朱子語類大全』, 卷九十八, p. 2511.

38) 前揭書：『格致餘論』『相火論』, p. 38.

39)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 10.

40)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 10.

41) 上揭書：『慈幼論』, p. 14.

42) 前揭書：『太極圖說注』

43) 前揭書：『格致餘論』『相火論』, pp. 39-40.

44) 上揭書：『相火論』p. 39, 『陽有餘陰不足論』p. 10.

색욕의 경계를 종지로 삼아 여기에서 음양의 함의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陽有餘陰不足’의 실질은 “人之情欲無涯, 此難成易虧之陰氣, 若之何而可以供給也?”⁴⁵⁾ 함에 있다.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를 논하기 위해 단계는 네 가지 방법의 논거를 들었다. 첫째 天地日月로 비유하였다. 둘째 陰氣는 ‘難成易虧’하는 생리적인 특징을 언급하였다. 셋째 끝없는 情欲의 일반적인 경향을 논하였다. 넷째 경전을 인용한 것으로 『황제내경』의 經旨로 자신의 논점을 증명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와 셋째 두 가지 점이다.

陰氣가 難成하게 되는 것은 남자는 16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精이 만들어지고 經이 통하여 生育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以能成人, 而爲人父母”⁴⁶⁾인 데에 있다. 易虧는 “四十陰氣自半”하여 남자는 64세, 여자는 49세가 되면 精과 經이 끊겨 생육 능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陰氣之成, 止供給得三十年之視聽言動, 已先虧矣.”⁴⁷⁾라 하였다. 이는 시간상으로 상대적인 ‘陰不足’이다.

일반인은 정욕을 추구하는 경향이 과분하여 평형을 잃은 ‘陽有餘陰不足’을 촉진시킨다. 『色欲箴』에서 “眷彼昧者, 徇情縱欲, 惟恐不及”⁴⁸⁾이라 하여 양이 태과하면 陰은 거듭 상하여 精血의 생리가 지속되기 어렵게 되어 몸을 손상시키는데, “血氣幾何? 而不自惜! 我之所生, 翻爲我賊”⁴⁹⁾한다고 하였다. 이는 ‘量’적인 대비에 따른 ‘陰不足’을 이해한 것이다.

주단계는 “況中古以下, 風俗日媮, 資稟日薄”⁵⁰⁾한 사회적인 풍조를 개탄하고 끝없는 정욕의 ‘陽’과 ‘難成易虧’하는 생식의 물질적인 ‘陰’이 평형을 이루기가 어려운 수급관계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孫一奎는 태평시대에는 “人多醴酒縱欲, 精竭火熾”⁵¹⁾하였고 주단계가 출현함으로써 “創此救時之

說”⁵²⁾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계가 제시한 양생이론과 방법론이 현실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필요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天地日月로 인신의 陰陽氣血의 有餘不足을 설명한 이러한 取類比象 방법은 논리학에서 類比라 한다. 그러나 類比는 필연적이고 정확한 결론을 제공할 수 없고 그 결과 역시 증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張介賓도 天地日月에서 ‘陽非有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四庫全書』에서 비평하길 두 사람이 취한 비유가 옳지만 “各明一義而忘其各執一偏, 其病亦相等也.”⁵³⁾라 하여 실질적으로 類比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단계가 이러한 추리로 얻은 결론은 ‘陰易虧, 陽易動’이지만 이는 실천을 통한 관찰한 자료로도 증명되어야 한다. 天大地小하고 日實月缺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類比의 결과가 단지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단계는 마찬가지로 “相火妄動, 煎熬眞陰”⁵⁴⁾하는 병변을 설명하거나 증명하지도 못하였다. 古人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단계의 후학인 劉純이 일찍이 “陰陽虛實之體雖不同, 而升降之用, 所乘之機, 既無降殺, 則陰之體本虛, 曷用補哉”⁵⁵⁾라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논거를 강화시키기 위해 주단계는 또한 『황제내경』의 원문을 인용하여 증명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원문의 논증 역량을 감소시켰다. 『太陰陽明論』의 “陽道實, 陰道虛”⁵⁶⁾는 외감은 多實하고 內傷은 多虛하다는 뜻이고, 『方盛衰論』의 “至陰虛, 天氣絕. 至陽盛, 地氣不足”⁵⁷⁾에서 陰陽은 天地之氣를 가리키는 가설적인 것으로 天地陰陽之氣가 서로 승강하는 이치를 증명한 것이다. 陰陽의 함

45)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 10.
 46)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 10.
 47)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 10.
 48) 上揭書：『色欲箴』, p. 9.
 49) 上揭書：『色欲箴』, p. 10.
 50) 上揭書：『房中補益論』, p. 43.

51) 前揭書：『四庫全書總目·子部·醫家類』『格致餘論』, p. 871.
 52) 上揭書：『格致餘論』, p. 871.
 53) 上揭書：『格致餘論』, p. 871.
 54) 前揭書：『格致餘論』『相火論』, p. 39.
 55) 劉純：『醫經小學』『醫之可法爲問』『劉純醫學全集』,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15.
 56) 顧從德 重雕版：『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卷八『太陰陽明論』, 國立中國醫藥研究所出版, 民國49, p. 17.
 57) 上揭書：卷二十四『方盛衰論』, pp. 6-7.

의가 달라 “觀虛與盛之所在, 非吾之過論”⁵⁸⁾이라는 결론을 결코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장개빈은 이에 관하여 “丹溪引此盛虛二字, 以證陽常有餘, 陰常不足, 其說左矣”⁵⁹⁾라 비평한 것은 확실히 정곡을 찌른 것이다. 단계가 經旨를 인용하여 증명함으로써 도리어 사람들에게 시비 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비평을 받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음양으로 인신의 精血과 情欲 관계를 논한 것은 독창적인 견해이지만 이전에 이를 말한 고인도 없었고 논거를 부회시킨 감이 없지 않다.

4. 陰陽動靜觀과 生理病理

단계가 ‘參以太極之理’하여 ‘火’의 생성 이치와 성질을 밝힌 목적은 火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양생론과 화열병 예방과 치료의 이론적인 기초를 세우는 데에 있었다.

단계는 『易傳』의 “吉凶晦吝生乎動”⁶⁰⁾을 인용하여 ‘動’의 이중성을 설명하고⁶¹⁾, “人有此生, 亦恒于動”⁶²⁾하여 動이 과하면 “煎熬眞陰”⁶³⁾하여 병이 된다고 하였다. 『相火論』의 주지가 相火의 병인병기를 발휘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는 ‘動’의 병리적인 의의를 더욱 강조하고, ‘靜’의 작용은 相火의 생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주단계의 動靜觀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문제이다.

이른바 ‘動’에 관하여 단계는 정신 및 감정활동을 특히 중시하였지 형태의 체력적인 활동에는 미치지 않았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단계의 相火는 내에서 생기는 火熱에 속하고 병인은 『三因方』에서 “內所因惟屬七情交錯, 愛惡相勝而爲病”⁶⁴⁾이라 한 것에서 원용하였다. 둘째,

“周子曰 神發知矣, 五性感物而萬事出矣”⁶⁵⁾한다는 ‘太極之理’를 차용하고 발휘시켜 정신과 감정활동이 모두 ‘陽動’하는 것에 속하고 ‘極’하면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았는데, 이는 또한 유완소가 주장한 “五志所傷皆熱也”⁶⁶⁾의 학설에 부합된다. 또한 하나의 심층적인 원인은 ‘動靜’, ‘性命’, ‘主靜’, ‘誠’ 등의 개념에 있는데, 본래 佛家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는 내심의 세계를 밝히는데 사용된 것으로 周敦頤, 邵雍에 의해 수용, 운용되었고 그것의 원시 함의가 바뀌지 않고 주단계가 病因觀에 적합 시켜 의학에 원용하였다.

나아가 단계는 ‘五性感物’로 정신, 감정활동이 過極해지는 원인을 해석하였다. “仁義禮智信之性, 卽水火木金土之理”⁶⁷⁾라 한 것은 본래 理學家의 선형적인 도덕윤리이고 후천적인 ‘感物’이 사람을 선악으로 나누고 형형색색의 만사를 탄생시킨다. 단계가 “有知之後, 五者之性爲物所感, 不能不動”⁶⁸⁾이라 하여 ‘爲物所感’을 부각시켜 외계의 자극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구별하였다.

주희는 또한 “靈處只是心, 不是性, 性只是理”⁶⁹⁾라 하여 心이 정신활동을 주재한다고 하였고, 단계는 이것에 따라 “心, 君火也, 爲物所感則易動, 心動則相火亦動”⁷⁰⁾이라 하였다. 따라서 단계는 ‘心’과 ‘爲物所感’의 두 가지 주요한 부분을 붙잡고 양생관을 정립하였는데, 그 요점은 곧 ‘靜’이다.

단계는 또한 『太極圖說』에서 “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이라 한 것과, 朱熹가 “必使道心常爲一身之主而人心每聽命焉”⁷¹⁾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無欲而靜”하고, “心不遷于外物”하고, “不爲情感所累”하면 五志之火의 動함이 모두 ‘中節’하여 정상적인 생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58) 前掲書：『格致餘論』『陽有餘陰不足論』, p. 10.

59) 張介賓：『張氏類經·脈色類』卷五『診有十度診有陰陽』, 成輔社, 1982, p. 123.

60) 前掲書：『周易傳義』下卷『繫辭下傳』, p. 568.

61) 前掲書：『格致餘論』『房中補益論』, p. 38.

62) 上掲書：『相火論』, p. 38.

63) 上掲書：『相火論』, p. 39.

64) 陳無擇：『三因極一病證方論』卷八『內所因論』,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92.

65) 前掲書：『格致餘論』『相火論』, p. 38.

66) 劉完素：『素問玄機原病式』『熱類·悲』,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 27.

67) 前掲書：『性理精義』『太極圖說注』, p. 7.

68) 前掲書：『格致餘論』『相火論』, p. 39.

69) 前掲書：『性理精義』『太極圖說注』, p. 7.

70) 前掲書：『格致餘論』『陽有餘陰不足論』, p. 11.

71) 前掲書：『朱子大全』『中庸章句序』卷七十六, p. 22.

『周子通書』에서 道를 해석하길 “中也者, 和也, 中節也, 天下之達道也, 聖人之事也”⁷²⁾라 하였고, 주희는 “謂之正, 則是非端得分明, 乃智之實也”⁷³⁾라 하여 욕심이 없이 고요하고 맑은 마음과 안정된 뜻을 유지하는 관건이 中正仁義의 도덕수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희는 또한 “靜者, 性之所以立也”, “故人雖不能不動, 而立人極者必主乎靜, 唯主乎靜則其著乎動無不中節而不失其本然之靜矣”⁷⁴⁾라 하였는데, 즉 理智의 靜과 道德의 靜은 性의 本을 세우고 감정의 행위가 中節하는 전제가 된다는 뜻이다. 단계는 그 뜻을 깊이 깨닫고 醫理를 증명하는데 원용하였다. 『房中補益論』에서 “儒者立教, 曰正心, 收心, 養心, 皆所以防此火之動于妄也. 醫者立教, 曰恬淡虛無, 精神內守, 亦所以遏此火之動于妄也.”⁷⁵⁾라 하였다. 주단계는 醫儒의 ‘理’가 일치하여 主靜의 실질적인 의의는 理智로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 있고 이를 함양하여 心君의 情志之火가 망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생리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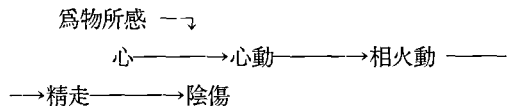
주희의 道心, 人心은 실은 天理, 人欲으로 주단계는 ‘存天理, 滅人欲’하는 理學의 宗旨과 ‘謹身節欲’하는 의학적 관점을 서로 결합하여 독특한 양생관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주희의 학생이 “飲食之間, 孰爲天理, 孰爲人欲?”⁷⁶⁾이나고 묻자 朱熹는 “飲食者, 天理也. 要求美味, 人欲也”라 대답하였다. 단계는 이러한 관점을 『茹淡論』에 끌어드려 음식물은 “天之所賦者, 若穀菽菜果, 自然冲和之味, 有食人補陰之功”⁷⁷⁾, “人之所爲者, 皆烹飪調和偏厚之味, 有致疾伐命之毒”⁷⁸⁾이라 하였다. 따라서 “安于冲和之味者, 心之收, 火之降也. 以偏厚之味爲安者, 欲之縱, 火之勝也”⁷⁹⁾라 하였다. 단계 자신이 몸소

이를 실천하였는데, 宋濂이 그에 대해 “居室垣塘, 敦尚儉僕. 服御唯大布寬衣, 僅取蔽體. 藜羹糗飯, 安之如八珍 …… 其清修苦節, 能爲人之所不能爲, 而于世上所悅者, 淡然無所嗜.”⁸⁰⁾라 칭찬하고 그가 綱常治化를 자신에게 요구한 것을 표창하였다. 단계 자신도 “年邁七十矣, 盡卻鹽醢”⁸¹⁾하였지만 오히려 “神茂而色澤”⁸²⁾하였는데, 이는 醫儒가 일치하는 ‘理’를 자신에게 요구하여 양생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5. 情欲傷陰의 理致와 養生

단계는 생식물질인 ‘陰’이 肝腎의 제어를 받아 “主閉藏者腎也, 司疏泄者肝也”⁸³⁾라 하였고, 두 장의 직책이 또한 분담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관건이 되는 것은 相火라고 보았다. “相火靜而藏則屬腎, 動而發則屬肝也”라 하여 相火가 安居하고 守位稟命하면 腎이 閉藏을 주관하고 陰이 保養될 수 있으며, 相火가 浮動하여 肝腎을 끌어내리면 肝이 疏泄을 맡아서 음정이 손상된다. 따라서 相火는 음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관건이 된다.

그러나 相火는 “其系上屬于心”⁸⁴⁾하여 심의 제어와 지휘를 받는다. 心이 외계사물(특히 女色을 가리킨다)에 감촉되면 ‘易動’하여 정욕이 싹트고 상화를 촉발시켜 음정이 손상된다. 단계는 사람들이 그의 고심을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한 걸음 나아가 설명하길 “相火翕然而起, 雖不交會, 亦暗流而疏泄矣.”⁸⁵⁾라 하여 욕망이 동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실사 성행위가 없더라도 음정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간단한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72) 周敦頤 : 『周子通書』 『師第七』 『四部備要·子部』, 第160冊, 上海中華書局, 1936.
 73) 前掲書 : 『性理精義』 『太極圖說注』, p. 8.
 74) 前掲書 : 『朱子大全』 『太極說』 卷六十七, p. 16.
 75) 前掲書 : 『格致餘論』 『房中補益論』, p. 42.
 76) 朱偉常 : 『中醫師訓班論文選』 『試論哲學對河間, 丹溪學說的滲透和影響』, 上海中醫學院, 1980.
 77) 前掲書 : 『格致餘論』 『茹淡論』, p. 40.
 78) 上掲書 : 『茹淡論』, p. 40.
 79) 上掲書 : 『茹淡論』, p. 41.

80) 宋濂 : 『宋學士全集』 『故丹溪先生朱公石表辭』, 『四部叢刊正編』 卷71, 法仁文化社, 1989.
 81) 前掲書 : 『格致餘論』 『茹淡論』, p. 40.
 82) 上掲書 : 『茹淡論』, p. 40.
 83) 上掲書 : 『陽有餘陰不足論』, p. 11.
 84) 上掲書 : 『陽有餘陰不足論』, p. 11.
 85) 上掲書 : 『陽有餘陰不足論』, p. 11.

이 도식에서 ‘心動’에서 ‘陰傷’에 이르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단계는 병을 일으키는 고리를 단절시키는 두 가지 요인에 착안하여 “心不妄動”, “不見所欲”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중심이 되는 것이 ‘心’이고 요점은 ‘靜’에 있다.

심이 망동되지 않는 것은 주로 도덕수양의 문제이다. “聖人只是教人收心, 養心, 其旨深矣”⁸⁶⁾라 하였고, 『相火論』에서 또한 程子, 朱子の 말인 “人心聽命于道心”⁸⁷⁾을 자주 인용하여 이지적으로 감정을 제어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뜻을 맑게 하여 함부로 헛된 생각으로 심을 동하게 하여 상화를 불러일으키게 하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 『房中補益論』에서는 한 걸음 나아가 醫儒가 收心, 正心, 恬淡虛無하는 공통적인 목적은 모두 心의 君火가 동하여 相火를 동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靜’과 ‘心’은 단계가 근신하고 절육하는 양생관과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없애는 理學의 중지를 서로 결합시키는 교차점이 되어, 修身하고 養性하는 儒理에 힘쓰는 것이 모두 화를 억제하고 정을 보존하는 의학의 목적에 중점을 두었다.

老子에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⁸⁸⁾이라 한 것을 단계가 인용하여 心은 外物에 의해 동하는 것을 피하고 정욕을 촉발시키는 외래 요인을 없앤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夫以溫柔主盛於體, 聲音之盛於耳, 顏色之盛於目, 馨香之盛於鼻, 誰是鐵漢, 心不爲之動也?”⁸⁹⁾라 하여 여색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出居于外”하거나 “暫遠帷幕”해야 한다⁹⁰⁾고 하였다.

따라서 단계는 마음을 거두고 색을 멀리하는 양생의 조처가 예방적인 차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非分之事’를 하지 말고 또한 ‘非非之想’을 하지 말 것을 간곡히 타일렀다. 모든 양생관은 ‘心’을 둘러싸고 있고 ‘靜’을 부각시킨 것으로 송대 이학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存天

理, 滅人欲’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坤道成女하고 乾道成男하여 남녀가 배합하는 것이 결국 또한 天理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必近三十, 二十而後嫁娶”⁹¹⁾, “成之以禮, 接之以時”⁹²⁾할 것을 주장하고 ‘謹四虛’를 제시하였다.

이른바 ‘謹四虛’는 『靈樞·歲露』에서 “乘年之衰, 逢月之空, 失時之和, 因爲邪風所傷, 是爲三虛”라 한 설에 바탕을 두고, 또한 孫思邈의 『千金方·房中補益論』에서 유관한 주장을 직접 수용하였다. 첫째 ‘年之虛’로 여름과 겨울인 4, 5, 6, 10, 11월은 火土가 왕성하거나 화기가 숨어 있어 金水의 臟을 보호하기 위해 “此五个月出居于外”⁹³⁾할 경우 반드시 혼자 기숙하고 담백한 음식을 먹어 정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 둘째 ‘月之虛’로 『황제내경』에서 혈기의 허실이 달이 차고 기우는 것에 따라 변한다는 설을 받들어 반드시 上弦前, 下弦後, 月廓이 공허한 때를 삼가 한다⁹⁴⁾. 셋째 ‘日之虛’로 즉 기후가 돌변하고 정서가 요동칠 때이다⁹⁵⁾. 또한 주단계는 ‘病患之虛’로 병이 물러나기 시작하고 瘡瘍가 바로 발작할 경우에는 곧 삼가하여 범해서는 안되며⁹⁶⁾, ‘善攝生者’는 年之虛한 시기에 出行하였을 경우 “苟值一月之虛, 亦宜暫遠帷幕, 各自珍重, 保全天和, 期無負敬身之教”⁹⁷⁾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日之虛’, ‘病患之虛’에 대해서 그는 밝히지 않지만 그 뜻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추측할 수 있다.

단계의 양생론이 독특하고 고명한 점은 그가 相火라는 중간 고리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정욕이음을 상하게 한다는 기리에 따르고, 이학의 개인적인 수양과 봉건 도덕설교를 서로 결합시켜 또 다른 선명한 특색을 형성한 데에 있다. 이는 단계 이전 사람들이 단지 경계하고 전범을 세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쳤지 그렇게 되는 까닭을 말하

86)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 10.

87) 上揭書：『相火論』, p. 39.

88) 前揭書：『老子註譯及評介』三章, p. 71.

89) 前揭書：『格致餘論』『陽有餘陰不足論』, p. 11.

90)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 11.

91)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 10.

92) 上揭書：『色慾箴』, p. 9.

93)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 11.

94)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p. 10-11.

95)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 11.

96)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 11.

97) 上揭書：『陽有餘陰不足論』, p. 11.

지 않는 것에 비해 더욱 깊이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

이 밖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양생론의 적용 대상이 단지 남자라는 점이다. 상화가 음을 상하는 이치는 물론이고 또한 收心養性하고 斂神澀精하는 방법이 모두 남자를 겨냥하여 입론하였다. 그는 “女法水, 男法火, 水能制火. 一樂於與, 一樂於取, 此自然之理也”⁹⁸⁾라고 보았으나, 남자가 색욕을 탐하면 폐가 망신하지만 여자는 閨門의 엄숙함과 가정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에 불과하여 결과가 다르다⁹⁹⁾고 하였다.

6. 後世의 評論

丹溪의 이 이론이 나오자 의학계에서 상당히 중시되었으나 후인의 견해와 각자의 이해에 따라 인식이 달랐다.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養生論으로 氣血陰陽의 有餘不足이 생리 현상에 속한다고 보았고, 하나는 病因病機論으로 陰陽의 有餘不足이 병리적인 상황에서의 기본적인 이치로 보아 단계 ‘滋陰論’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었다.

1) 양생론으로 본 평론

戴良의 『丹溪翁傳』은 최초로 단계의 학술에 대해 평론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陽有餘陰不足論’을 두 가지 문제로 귀납시켰다. 첫째는 氣는 항상 유여하고 血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今欲順陰陽之理而爲攝養之法, 如之何則可?”¹⁰⁰⁾이다. 하나는 ‘陰陽之理’를 논하고 하나는 ‘攝養之法’을 논한 것으로 전자는 후자의 전제이고, 후자는 전자를 논리적으로 부합시킨 결과이다. 평론은 간략하지만 단계가 주장한 양생의 진면목을 戴氏가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明代 李梴의 『醫學入門』 첫 권인 『保養門』에 『

上古天真論』, 丹溪의 『茹淡論』, 『陰有餘陽不足論』(증보한 내용은 『陰火論』이라 제목을 바꾸었다), 자찬한 保養論을 수록하였다. 문장 앞 小序에서 “錄『天真論』于前者, 保養之源也. 錄『茹淡』, 『陰火論』于中者, 保養不過節食與色而已. 更爲說于後者, 黜邪崇正法隨之真也”¹⁰¹⁾라 하였다. 李氏는 “火不妄動, 動出于心, 靜之一字, 其心中之水乎”, “神靜則心火自降, 欲斷則腎水自升”, “主于理則人欲消亡而心神靜, 不求靜而自靜” 등이라 하였는데, 이는 단계의 깊은 뜻을 체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汪機의 『石山醫案』 첫머리에서 요지를 밝혀 말하길 “丹溪論陽有餘陰不足, 乃據理論人之稟賦也.”¹⁰²⁾라 하였고, 그 목적은 “無非戒人保守陰氣, 不可妄損耗也”, “此丹溪所以立論垂于後也, 非論治陰陽之病也”¹⁰³⁾이다. 汪氏의 이러한 시각은 양생에 대해 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汪氏의 의학사상은 氣血을 중시하여 기혈논치의 특징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논지를 전환시켜 “若遇有病氣虛則補氣, 血虛則補血”¹⁰⁴⁾이라 하고 이어서 氣陽, 血陰과 衛陽, 營陰으로 분류하여 ‘陽有餘陰不足’을 氣血論治 속에 납입시켰다. 그가 이러한 모순된 태도를 취한 연유를 살펴보면 주로 음양의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혈로 음양을 삼았기 때문이다. 그는 단계가 논한 稟賦가 곧 ‘氣有餘血不足’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음이 부족한 모든 예는 여자의 經來와 經斷에서 취하고 男子의 精通과 精絶을 배제시켰다. 傷陰의 예는 『황제내경』의 五勞所傷을 취하여 음기를 지키는 것이 補血, 養血이라고 오인하였는데, 그는 기혈을 중심에 두고 음양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양생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陽氣를 조화하여 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陽有餘說과 마찬가지로 모순되어 애써 변죽만 울렸다. 汪氏가 단계의 원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였다면 단정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나타내어야지 이와 같이 에두를 필요가 전혀

101) 上掲書: 『保養』, p. 162.

102) 汪機: 『石山醫案』 『營衛論』 『汪石山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5.

103) 上掲書: 『營衛論』, p. 65.

104) 上掲書: 『營衛論』, p. 65.

98) 上掲書: 『房中補益論』, p. 43.

99) 上掲書: 『色慾箴』, p. 10.

100) 李梴 著 安秉國譯: 『國譯編註醫學入門』 卷一 『保養』, 崇文社, 1978, p. 180.

없다.

2) 病機論으로 본 평론

王綸의 견해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그는 “人之 一身，陰常不足，陽常有餘，況節欲者少，過欲者多，精血既虧，相火必旺，火旺則陰愈消，而勞瘵，咳嗽，咯血，吐血等症作矣。”¹⁰⁵⁾라 하여 단계가 “相火妄動，煎熬真陰”¹⁰⁶⁾라 한 것을 변화시켜 “精血既虧，相火必旺”¹⁰⁷⁾이라 함으로써 원인을 결과로 바꾸어 “陽有餘陰不足論”이 마침내 일반하여 病因病機論이 되었다. 나아가 王綸은 또한 “故宜常補其陰，使陰與陽齊，則水能制火，而水升火降，斯無病矣。故丹溪先生發明補陰之說，謂專補左尺腎水也。”¹⁰⁸⁾라 하여 후세 이른바 단계가 발명하였다고 하는 ‘陰虛火旺’의 학설이 곧 여기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精血既虧，相火必旺”은 ‘陽有餘陰不足論’에 있는 것이 아니며 王氏가 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단계의 원래 뜻은 아니다.

張介賓은 단계의 ‘陽有餘陰不足論’에 대해 강경한 반대의 태도를 견지하여 『景岳全書·傳忠錄』에 전문적으로 논한 『辨丹溪』⁹조가 있고¹⁰⁹⁾ 또한 『陽不足再辨』¹¹⁰⁾이 있으며 미진한 뜻은 또한 『質疑錄』의 『論陽常有餘』¹¹¹⁾, 『論氣有餘即是火』¹¹²⁾ 등의 편장에서 언급하였다. 반복적으로 논한 요점은 단지 하나로 “陽非有餘而真陰不足”이다¹¹³⁾. 그러나 장개빈의 논증방법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는 단지 眞陽之氣의 중요한 의의를 거듭 강조하여 단계의 이론이 부당함을 비평하였는데, “陽道實，陰道虛” 등을 인용한 것은 경지에 부합

하지 않고, 天地日月의 類比가 다른 결론을 내렸고, 특히 知母, 黃柏으로 瀉火補陰하는 방법을 강렬하게 반대한 것은 단계가 논한 ‘陰’, ‘陽’의 함의를 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개념을 바꾼’ 논리의 착오로 장씨의 논지가 과녁을 정확하게 겨냥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장경악과 그의 저작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滋陰降火하는 ‘陽有餘陰不足論’의 병인병기론의 관점이 광범하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汪機의 再傳 제자인 孫一奎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두 가지 관점의 모순을 조화시켰는데, “蓋以人當承平，醴酒縱欲，以竭其精，精竭則火熾，復以剛劑認爲溫補，故不旋踵血溢內熱骨立而斃，與燈膏竭而復加炷者何異？此陽有餘陰不足之論所由著也”¹¹⁴⁾라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욕망을 좇아 정을 고갈시키지 못하게 경계하는 것이 이를 쓴 목적으로 손씨는 단계 양생론의 성질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精竭則火熾”라 하여 원론에서 “火動而精走”라 한 것을 전도시켜 원인이 거꾸로 결과가 되어 王綸의 병기론을 찬동하였다. 그러나 또한 滋陰降火論을 내세워 苦寒清降之劑를 남용하는 오류를 비평하였다. “後學不察，概守其說，一遇虛怯，開手便以滋陰降火爲劑，及末期，卒聲啞泄瀉以死，則曰丹溪之論具在，不知此不善學丹溪之罪，而于丹溪何尤？”¹¹⁵⁾라 하였다. 치우치지 않은 온당한 견해에는 병기론을 찬동하는 태도가 숨어 있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其說謂陽易動，陰易虧，獨重滋陰降火，創爲‘陽常有餘，陰常不足’之論。張介賓等攻之不遺餘力。然震亨意主補益，故諄諄以飲食，色欲爲箴。所立補陰諸丸，亦多奇效”¹¹⁶⁾라 논평하였다. ‘陽有餘陰不足論’은 마침내 滋陰降火를 중시하고 補陰시키는 여러 약을 만드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다.提要로 볼 수 있는 이 논점은 모든 것을 논증하였고 또한 “諄諄以飲食，色欲爲箴”

105) 王綸：『明醫雜著』『補陰丸論』，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1，p. 17.

106) 前掲書：『格致餘論』『相火論』，p. 39.

107) 前掲書：『明醫雜著』『補陰丸論』，p. 17.

108) 上掲書：『補陰丸論』，p. 17.

109) 張介賓：『景岳全書』『傳忠錄·辨丹溪共九條』『張景岳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1999，pp. 913-917.

110) 上掲書：『陽不足再辨』，pp. 904-906.

111) 張介賓：『質疑錄』『論陽常有餘』『張景岳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1999，p. 1845.

112) 上掲書：『論氣有餘即是火』，p. 1845.

113) 李凌川 編：『醫易學思想』，法仁文化社，2000，p. 245，pp. 278-279.

114) 孫一奎：『醫旨緒餘』『張劉李朱滑六名師小傳』『孫一奎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1999，p. 684.

115) 上掲書：『張劉李朱滑六名師小傳』，p. 684.

116) 前掲書：『四庫全書總目·子部·醫家類·格致餘論』，p. 871.

하는 양생관과 孫一奎가 “創此救時之說”하였다는 저작 동기와 朱, 張의 논쟁에 대해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태도를 견지하여 마침내 ‘陽有餘陰不足論’의 病因病機說이 정론으로 되었다.

III. 結 論

본자는 이상과 같은 본론의 연구를 통하여 金元四大家 가운데 一家인 주단계의 음양론에 관하여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朱丹溪는 걸출한 의학가이며 理學의 신봉자로서 이학과 의학을 渾然一體로 융합한 이론 체계를 수립하였는데, 그는 유학적 토대인 위에 ‘格物致知’의 의학적 이론을 사유함에 있어 ‘心知’를 추진하고 자신의 ‘認知’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때문에 주단계는 임상적 실천을 더욱 중시하여 구체적인 ‘物’에서 규율을 찾아 ‘知’와 ‘道’를 직접 느끼는 보다 엄격한 이론적인 태도를 갖추었다.
2. 朱熹는 周敦頤의 『太極圖說』을 개조하여 ‘太極理也’라는 새로운 명제를 제출하고 ‘理’를 宇宙의 본체이고 궁극적인 본원으로 삼아 ‘理’를 철학체계에서 최고의 범주로 보아 자신의 모든 사상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관하여 주단계는 또 다시 ‘太極之理’를 개념시켜 의학적 이치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단계는 우주운동의 근원을 『太極圖說』의 “無極而太極”, “無形而有理”를 부인하여 ‘無極’을 버리고 ‘太極’을 취함으로써,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 ……”라 인식하였다.
둘째. 『太極圖說』의 “動極而靜”, “靜極復動”의 개념인 태극운동의 순환구조론을 주단계는 동정이 병존하고 또한 한도가 있는 국면으로 인식하여, 생리상태의 동정은 특히 ‘動’은 태과할 수 없는 단계이며, ‘動極’은 일종의 병리상태로 인식하였다.
셋째. 『太極圖說』의 “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를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로 변화시켜

‘動靜’ 두 글자를 각기 陽, 陰 뒤에 가함으로써, ‘動靜’은 태극운동의 형식과 음양의 氣가 탄생하는 來源일 뿐만 아니라 음양의 氣가 운동하는 특징으로 인식하였다.

3. 음양의 함의에 있어서 주단계는 “氣常有餘血常不足”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언급된 氣血은 陰陽을 의미하여, 또한 ‘생식기능’과 유관하다고 하였다. 즉 ‘陰’은 기혈이 아니라 생식기능의 물질적인 기초이며, ‘陽’에 관하여 유여한 정욕의 過極과 相火가 망동하는 이상현상으로 인식하므로 유완소의 “五志皆能化火”의 관점을 결합하여 정신과 감정이 모두 ‘陽動’에 속한다고 보아 ‘凡動皆屬火’를 강조하였다.
陽有餘陰不足의 실질에 관하여 주단계는 “人之情欲無涯, 此難成易虧之陰氣若之何而可以供給也”이라 인식하여, 음양의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관계를 첫째 天地日月로 비유, 둘째 陰氣難成易虧의 생리적인 특징을 언급, 셋째 끝없는 情欲의 일반적인 경향, 넷째 『黃帝內經』의 經旨로 자신의 논점을 열거하였다.
4. 陰陽動靜觀에 있어 주단계는 “人有此生, 亦恒于動”이라 하여, 動의 주체를 ‘相火’로 인식하여 과항하면 “煎熬眞陰”하는 병리적인 상태가 되며 ‘靜’의 작용은 相火의 생리적인 상태를 유지함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여기서 말한 ‘動’의 개념을 주단계는 정신과 감정 활동을 중시하고 형체의 체력활동의 영역까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五性感物’로 정신, 감정이 過極해지는 원인을 해석하였다.
5. 情欲傷陰의 이치와 양생에 있어, 주단계는 생식물질인 ‘陰’이 肝腎의 제어를 받으며, 관건이 되는 것은 ‘相火’라고 보았다. 또한 相火는 심의 제어와 지휘를 받게되는데, 심이 외계사물에 감촉되면 ‘易動’하여 정욕이 싹트고 상화를 촉발시켜 음정 손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단계는 ‘心動’으로 ‘陰傷’하여 질병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心不妄動”, “不見所欲”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중심이 되는 것이 ‘心’이고 요점은 ‘靜’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양생관은 “人心聽命于道心”을 통하여 이지적으로 감정을 제어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뜻을 맑게 하여 함부로 헛된 생각으로 심을 동하게 하여 상화를 불러일으키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다만 양생론의 적용 대상이 단지 남성을 위주로 언급한 부분은 맹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6. 후세의 평론을 대체로 두 가지 견해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養生論으로 氣血陰陽의 有餘不足이 생리현상에 속한다고 보았고, 둘째는 病因病機論으로 陰陽의 有餘不足이 병리적인 상황에서의 기본적인 이치로 보아 주단계 滋陰論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었다.

첫째. 養生論으로 본 평론에 있어, 戴良은 최초로 단계의 학술에 대하여 “順陰陽之理”하여 “攝養之法”을 논하였고, 李梴은 “火不妄動, 動出于心, 靜之一字, 其心中之水乎” 등의 논술을 통하여 丹溪 養生論의 의미를 부각시켰으며, 汪機는 역시 “無非戒人保守陰氣, 不可妄損耗也”이라 하여 양생의 목적을 강조하였다.

둘째. 病機論으로 본 평론에 있어 王綸은 丹溪의 “相火妄動, 煎熬眞陰”을 “精血既虧, 相火必旺”이라 해석함으로써 “陽有餘陰不足論”이 病因病機論으로 인식되어 “陰虛火旺”의 이론이 출발하게 되었다.

張介賓은 『景岳全書』의 『傳忠錄』과 『質疑錄』에서 단계의 ‘陽有餘陰不足論’에 관하여 반대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파하였는데, 논변한 그의 요점은 ‘陽非有餘而眞陰不足論’이다. 그는 단지 眞陽之氣의 중요한 의의를 강조하여 주단계의 입론이 부당함을 비평하였지만 임상에 있어 眞陰之氣를 중시하여 滋陰降火, 滋水填精의 처방을 제시하여 후대에 ‘張熟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命門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후세에 온보학파의 이론적인 체계를 마련하였다.

孫一奎는 단계의 양생론의 개념을 이해하여 사람들에게 “醴酒縱欲, 以竭其精, 精竭則火熾”한다고

하였고, 또한 “火動而精走”의 개념으로 滋陰降火論을 삼아 苦寒清降之劑를 남용하는 오류를 비평하였다.

IV. 參考文獻

1. 顧從德 重雕版：『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國立中國醫藥研究所出版, 民國49.
2. 朱佑武 校注：『宋本傷寒論校注』,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3. 劉完素：『素問玄機原病式』,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4. 陳無擇：『三因極一病證方論』, 人民衛生出版社, 1983.
5. 朱震亨 撰：『格致餘論』『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
6. 劉純：『醫經小學』『劉純醫學全集』, 人民衛生出版社, 1986.
7. 張介賓：『張氏類經』, 成輔社, 1982.
8. 張介賓：『景岳全書』『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9. 張介賓：『質疑錄』『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0. 孫一奎：『醫旨緒餘』『孫一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1. 汪機：『石山醫案』『汪石山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2. 王綸：『明醫雜著』,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1.
13. 嚴世藝 외22人：『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14. 劉祖貽 외1人：『中國歷代名醫名述』, 中國古籍出版社, 2002.
15. 冷方南 외 1人：『倡導養陰的朱丹溪』,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8.
16. 劉時覺：『朱丹溪“參以太極之理”的是非得失』, 醫學與哲學, 1983; (5): 15
17. 葉川 외1人：『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18. 章眞如：『朱丹溪學術考論』, 中國中醫藥出版社,

- 1994.
19. 劉祖貽 主編：『中國歷代名醫名述』，中國古籍出版社，2002.
 20. 段逸山：『醫古文』，人民衛生出版社，1985.
 21. 朱偉常：『中醫師訓班論文選』，上海中醫學院，1980.
 22. 安秉國 譯：『國譯編註醫學入門』，崇文社，1978.
 23. 朴炫局 외2人譯：『中國科學技術史』，一中社，2003.
 24. 李浚川 編：『醫易學思想』，法仁文化社，2000.
 25. 張日武 외 1人譯：『丹溪醫集』，서울대학교출판부，2000.
 26. 李永源：『朱丹溪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大田大學校 大學院，1991.
 27. 江標 輯：『四庫全書總目』：中華書局，1964.
 28. 孔安國：『尚書』『四部叢刊正編』卷1，法仁文化社，1989.
 29. 許謙：『讀四書叢說·大學』，中華書局，
 30. 周敦頤：『大極圖說』『四部備要·子部』第168冊，
 31. 周敦頤：『周子通書』『四部備要·子部』，第160冊，上海中華書局，1936.
 32. 黎靖德 編：『朱子語類大全』，中華書局，1994.
 33. 朱熹：『性理精義』，上海中華書局，1936.
 34. 朱熹：『太極圖說注』『四部備要·子部』，第168冊.
 35. 朱熹：『朱子大全』『四部備要·子部』第164冊，上海中華書局，1936.
 36. 宋濂：『宋學士全集』『四部叢刊正編』卷71，法仁文化社，1989.
 37. 陳鼓應 著：『老子註譯及評介』，中華書局，1987.
 38. 成百曉 譯：『周易傳義』，傳統文化研究會，1988.